

2020년 코로나19 위기 속 안양시·안양기업연대 '사랑앓 여름김치 담그기' 장맛비에 이웃애 쏟아 냈다

☞ 정양수 기자 | Ⓜ 승인 2020.07.26 08:40



24일 안양시청에서 열린 사랑앓 여름김치 담그기 참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안양시)
©YBS뉴스통신

(안양=YBS뉴스통신) 정양수 기자 = 2020년 뜨거운 여름을 앞두고 막마지 기승을 부리는 장맛비 속에서 안양시 지역 이웃사랑이 꽃을 피웠다.

24일 안양시청에서 여름김장 대전이 열렸다. 일명 '사랑앓 여름김치 담그기', 코로나19 사태로 어느 해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는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해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 소속의 기

업사회공헌팀 기관 관계자와 여성단체협의회 등이 사랑애했 여름김치 담그기 행사에 참여했다.



(사진=안양시) ©YBS뉴스통신

행사는 자원봉사센터 옥상에서 진행됐다. 그간 자원봉사자들이 옥상에서 직접 재배한 상추와 고추 등의 채소들을 주재료로 여름철의 별미인 열무김치를 담그는 자리였다.

뜻깊은 행사에 날씨까지 도움을 줬 비온 다음날 마치 가을 날씨를 보듯 청명한 하늘과 시원한 바람이 이마에 매치는 봉사자들의 땀방울을 가시게 했다.

이렇게 정성껏 담근 김치는 독거노인과 취약가정 등 315개소에 전달될 예정이다.



(사진=안양시) ©YBS뉴스통신

안양기업연대 윤성식(LS오토모티브) 단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은 필수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지금처럼 모두가 힘든 시기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함께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대호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에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기업에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안양기업연대는 2007년부터 안양시자원봉사센터를 주축으로 8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으로 올해에는 특히, 코로나 19 상황 속 방역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참여기업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롯데백화점 평촌점, LS오토모티브, 주식회사 미미, (주)각시피앤씨, 국제나은병원, 반딧불이, 보영운수 그루터기, (주)성창기공수처리공사, 안양시 청년사업가 모임, 쌍용자동차주식회사, 안양시사회복지협의회,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코카콜라

저작권자 © YB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양수 기자